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4호 [루계 제26128호] 주제 107 (2018)년 9월 11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위하여 환영공연과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
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특별대표인 중
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화인민
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퉁전서
동지가 인솔하는 중화인민
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위하여 9월 10일 환영공연
과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
였다.

공화국창건 70돐을 축하
하기 위하여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를 방문
한 중국의 귀빈들을 환영하는 예술인
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리진군동지를 비롯한 중
국대사관 성원들이 공연에 초대되였다.
뜻깊은 공연이 진행되는 만수대예술
극장은 조종 두 나라 국기와 조종천
성을 상징한 구호들과 장식물들로 아름
답게 단장되어있었으며 중국인민의
친선의 사절들에 대한 환영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국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
평동지께서 과전하신 중국의
귀빈들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환영과 친선의 정을 담아
특별히 준비한 공연무대에는
남성독창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가야금을 위
한 관현악 《아리랑》, 여성독
창 《당을 노래하노라》, 여성
중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와 중국노래들
인 여성독창과 남성합창
《장강의 노래》, 여성중창
《붉은기 펄펄》, 여성 4중창
《안녕하시라》, 여성중창 《나
의 중화민족을 사랑하네》,
여성독창과 방창 《새 세계
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으며 중국 《조종천
선은 영원하리라》가 울려 퍼
지는 속에 공연은 최정점을
이루었다.

와 리철주동지께서 극장홀에서 중화인민
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을 맞이
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고 그들과
기념촬영을 하신 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물전서동지를 비롯한 대표단성원들과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우렁찬 환호를 울리면서
조종천선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
였다.
물전서동지와 대표단의 주요성원들
에게 여성예술인들이 향기그윽한 꽃다
발을 드리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조선로동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승리의
길로 힘차게 노드쳐나아가는 우리 공화국
의 존엄과 위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
으며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
의 특별한 관심속에 년대와 세기물 이
어 더욱 풍만하게 개화발전하고있는
조종천선의 불멸성과 공고성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2 면 으 로 계 속

